

Kstat Report

68호 || 2023년 2월 9일

우리사회 주요 문제와 해결 주체

■ 우리사회 주요 문제 걱정 정도

- _ 물가 가장 걱정하고, 인구감소, 지도층 비리 순으로 걱정
- _ 1년 6개월 전에 비해, '물가' 걱정 많이 높아져
- _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 걱정 높아
- _ 4050세대 걱정 정도 비슷하고, 60대이상 낮아
- _ 보수층 걱정 정도 낮고, 중도층과 진보층 높아

■ 주요 문제에 대한 정치주체 해결 기대감

- _ 기대감 매우 낮은 가운데, 정부·여당 근소하게 우위
- _ 남자 2030세대는 정부·여당, 여자 2030세대는 야당
- _ 4050세대 야당 우위, 60대이상 정부·여당 우위
- _ 보수층과 진보층, 이념 따른 정당 지지 뚜렷

■ 주요 문제 해결 방향성

- _ 사회문제 해결 방향,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72%
- _ '개인 삶' 해결 방향,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61%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2월 3일(금) ~ 2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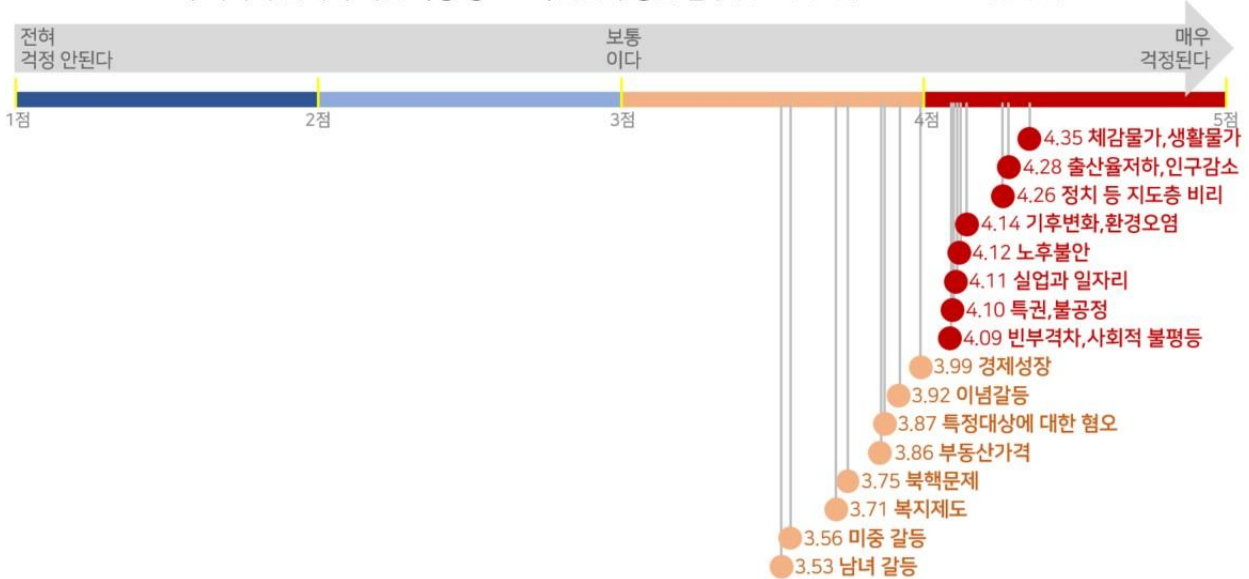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우리사회 주요 문제 걱정 정도

□ 물가 가장 걱정하고, 인구감소, 지도층 비리 순으로 걱정

-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체감물가, 생활물가’이고, 다음으로 ‘출산을 저하, 인구감소’, ‘정치 등 지도층 비리’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다음 각각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걱정되세요?”라는 질문 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함
 - 정치·외교 부문 : 정치 등 지도층 비리 / 복핵 문제 / 미중 갈등 / 이념 갈등
 - 경제 부문 : 실업과 일자리 / 체감물가, 생활물가 / 부동산 가격 / 경제 성장
 - 사회 부문 :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 남녀 갈등 / 특권, 불공정 / 출산을 저하, 인구 감소
 - 기타 부문 : 기후변화, 환경오염 / 노후 불안 / 복지제도 /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 조사는 ‘00 부문’을 삭제하고, 총 16개 문제를 랜덤하게 제시한 후에 각 문제마다 걱정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짐
- 걱정 정도가 가장 낮은 문제는 ‘남녀 갈등’이었고, 다음으로 ‘미중 갈등’, ‘복지제도’, ‘복핵문제’ 등으로 조사됨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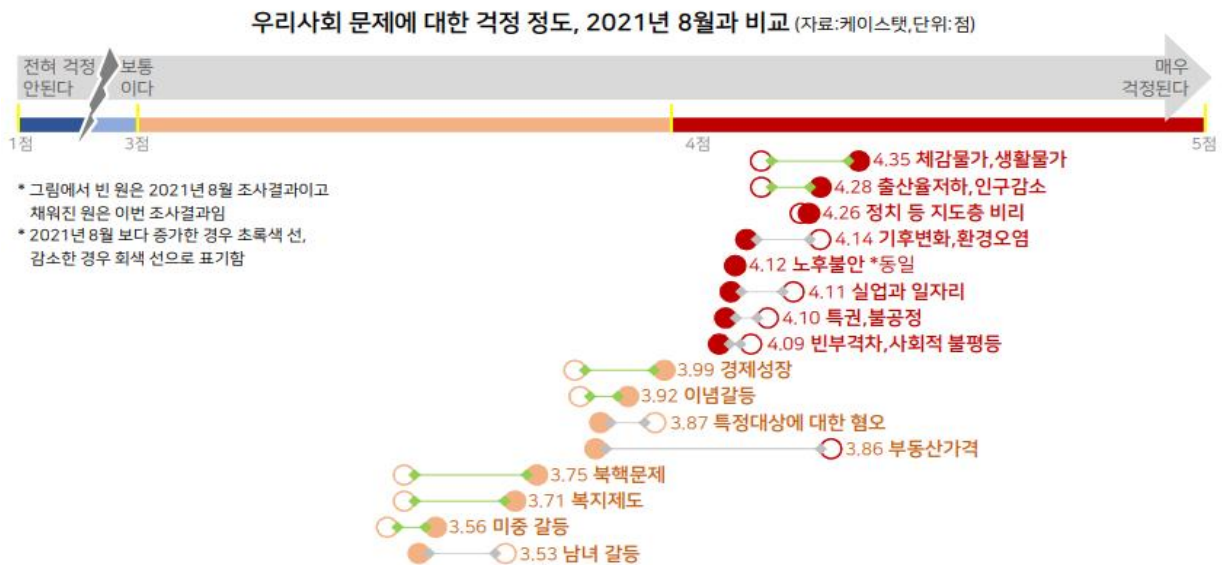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금 시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체감물가, 생활물가’로 나타남
 - :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물가가 2022년에 ‘고물가’로 이어지고, 2월 현재까지 ‘고물가가 유지된 결과로 분석됨
 - : 한편, 물가 외의 다른 경제 문제들(실업과 일자리, 경제성장)에 대한 걱정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주목됨
 - : KDI는 7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현 경제 상황을 ‘경기둔화 심화’로 진단했으나, 국민들은 ‘고물가’ 외의 다른 경제문제에 대한 체감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다음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출산을 저하, 인구감소’로,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보도되면서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한 ‘정치 등 지도층 비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등 정치인 및 주변인 관련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결과로 분석됨

□ 1년 6개월 전에 비해, '물가' 걱정 많이 높아져

- 1년 6개월 전(2021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정도와 순위가 다름
- 먼저 1년 6개월 전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였던 '부동산 가격'은 이번 조사에서 대폭 하락함
 - 1년 6개월 전 4.30점('매우 걱정된다' 수준)에서 3.86점('걱정된다' 수준)으로 낮아짐
- 그 외 걱정정도가 하락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환경오염(4.28점 → 4.14점) / 실업과 일자리(4.23점 → 4.11점) / 특권, 불공정(4.18점 → 4.10점) /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4.15점 → 4.09점) /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3.97점 → 3.87점) / 남녀갈등(3.69점 → 3.53점)
- 반면에 '체감물가, 생활물가'는 4.17점에서 4.35점으로 상승,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함
- 그 외 걱정정도가 상승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출산을 저하, 인구감소(4.17점 → 4.28점) / 정치 등 지도층 비리(4.24점 → 4.26점) / 노후불안(4.12점, 동일) / 경제성장(3.82점 → 3.99점) / 이념갈등(3.83점 → 3.92점) / 복핵문제(3.50점 → 3.75점) / 복지제도(3.50점 → 3.71점) / 미중갈등(3.47점 → 3.56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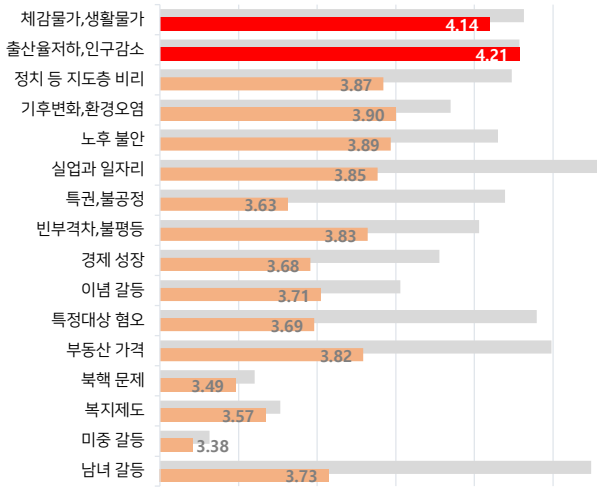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2021년 8월에 걱정 정도 1위를 기록했던 '부동산 가격'이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하락함
 - : 2021년 8월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로, 국민적 우려 역시 비등했던 시기였음
 - : 그러나 2022년 이른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걱정 정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 '체감물가, 생활물가'는 이와 반대로 2021년 8월보다 걱정 정도가 상승해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함
 - : 2022년의 고물가 상황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2023년 내내 국민들은 물가를 걱정할 것으로 전망됨
- ☑ 다른 경제문제 중 '경제성장'도 걱정 정도가 상승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 하지만 '실업과 일자리'의 경우 오히려 걱정 정도가 하락해, 최근의 '경기둔화 심화' 현실과 배치되는 모습임
 - : 이는 '경기둔화 심화'가 진행된 이후 실업문제가 대두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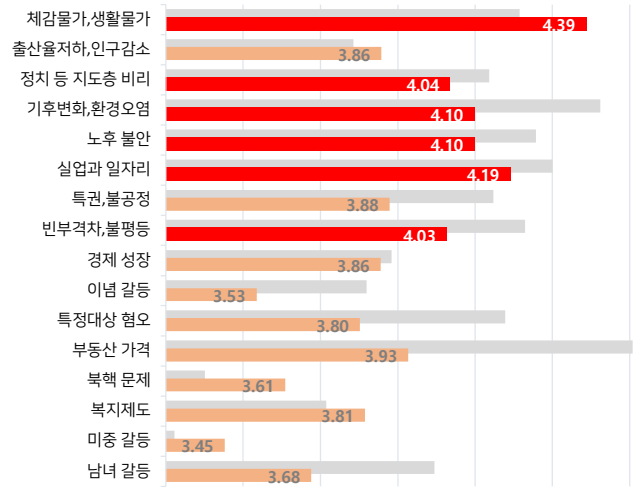
□ 20대보다 30대, 남성보다 여성 걱정 높아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 남녀 모두 ‘체감물가, 생활물가’를 걱정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 20대 여자와 30대 남녀에서는 1위이고, 20대 남자는 2위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2021년 조사결과임. 이번 조사에서 4점 이상은 짙은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또한 20대보다 30대의 걱정 정도가 높고, 같은 세대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걱정 정도가 높음
 - 4점 이상의 걱정 문제 수를 살펴보면 20대 남자는 2개인데 비해, 30대 여성은 12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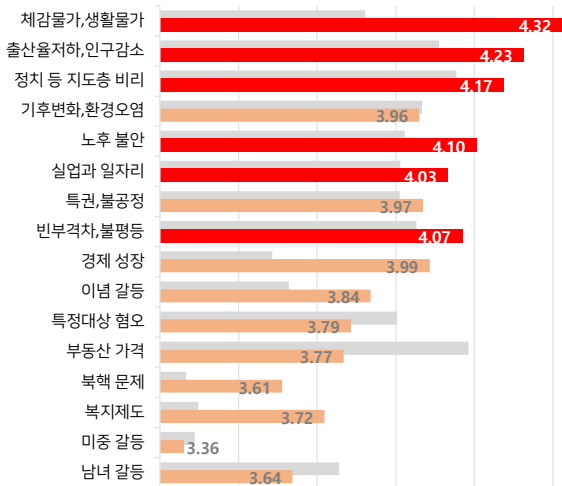
남자 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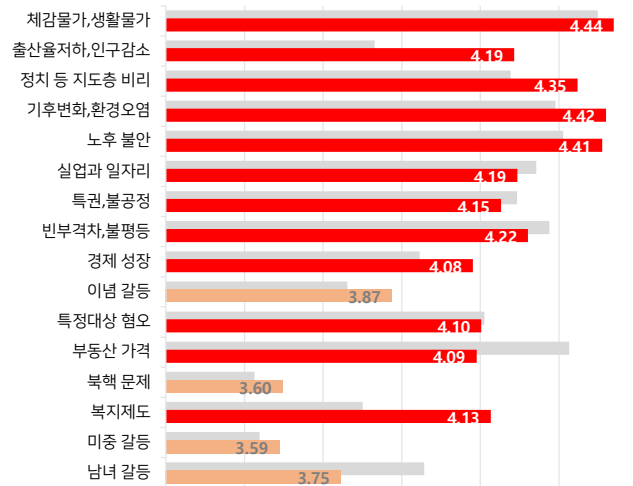
여자 18~2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남자 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여자 3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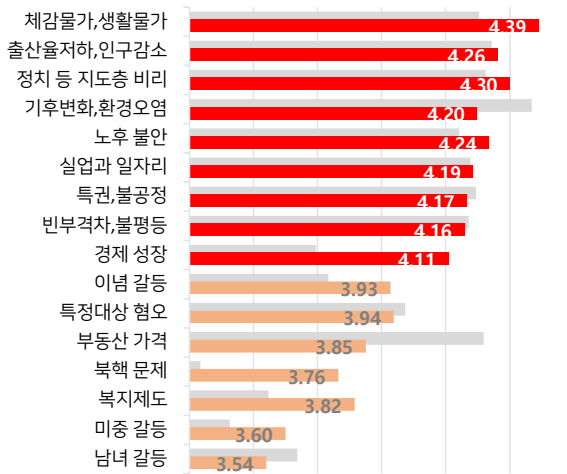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20대의 걱정 정도는 하락하고, 30대의 걱정 정도는 상승함
 - : 특히 20대 남자의 걱정 정도는 극적으로 낮아졌고, 30대 여자는 반대로 극적으로 높아짐
- ☑ 한편,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에 대한 여자 30대의 인식 변화가 주목됨
 - : 여자 20대는 2021년 수치에서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여자 30대는 크게 상승함(3.83점에서 4.19점으로)
 - : 여자 2030세대는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문제의 당사자 격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소 냉소적 태도를 취해왔음
 - : 여자 30대의 걱정 정도 상승이 ‘출산’에 대한 전향적 태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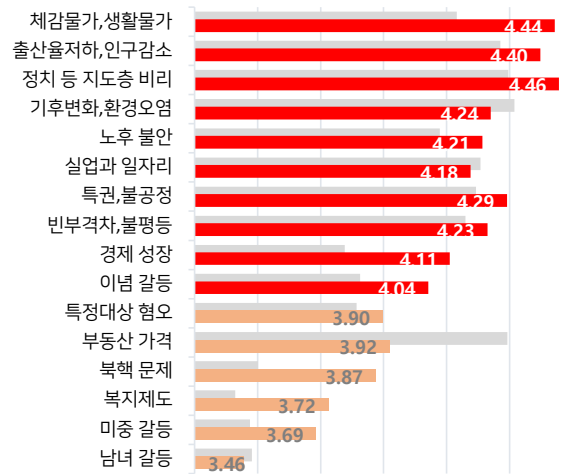
□ 4050세대 걱정 정도 비슷하고, 60대 이상 낮아

- 4050세대는 걱정하는 정도가 비슷하고, ‘체감물가, 생활물가’가 1위를 기록한 점도 동일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2021년 조사결과임. 이번 조사에서 4점 이상은 짙은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이에 비해 60대 이상의 걱정 정도는 전반적으로 4050세대보다 낮고, ‘체감물가, 생활물가’ 걱정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3위를 기록함

4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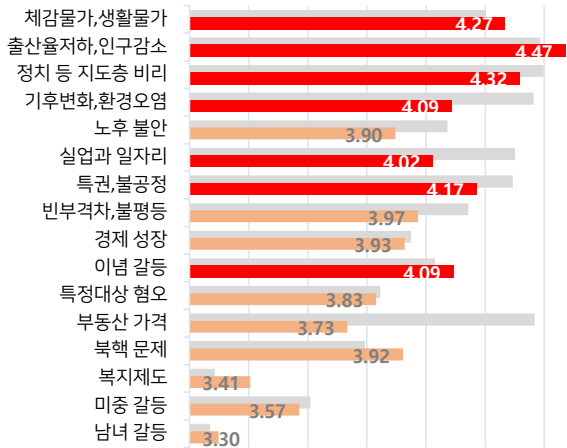


50대,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60대이상,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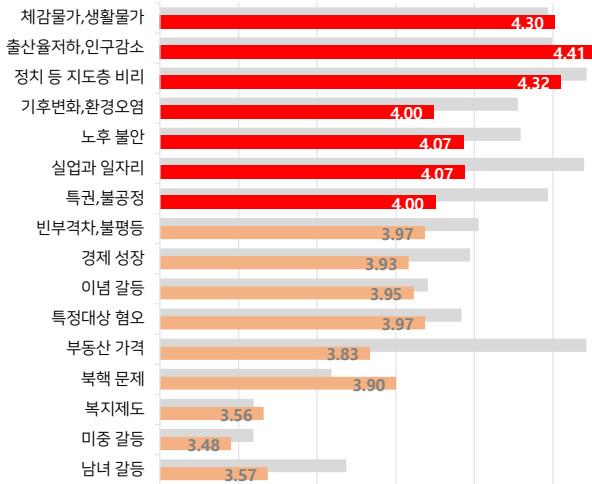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4050세대의 걱정 정도는 비슷하고, 60대 이상은 낮아짐
 - : 앞서 2030세대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여자 30대의 걱정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50세대의 걱정정도가 높음
- ☑ 4050세대의 걱정 정도에서 2021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임
 - : 4050세대 모두 2021년에는 3점 대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4점 대로 상승함(40대 3.69점 → 4.11점 / 50대 3.78점 → 4.11점)
 - : 경기둔화 또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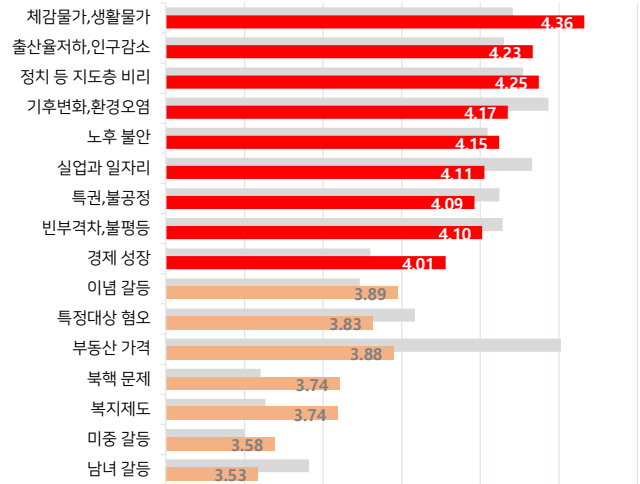
□ 보수층 걱정 정도 낮고, 중도층과 진보층 높아

- 주관적 이념별로 살펴보면, 중도층과 진보층의 걱정 정도가 비슷하고, ‘체감물가, 생활물가’가 1위를 기록한 점도 같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2021년 조사결과임. 이번 조사에서 4점 이상은 짙은 붉은색 막대로 표기함
- 이에 비해 보수층은 전반적으로 걱정 정도가 낮고, ‘체감물가, 생활물가’ 걱정 정도는 3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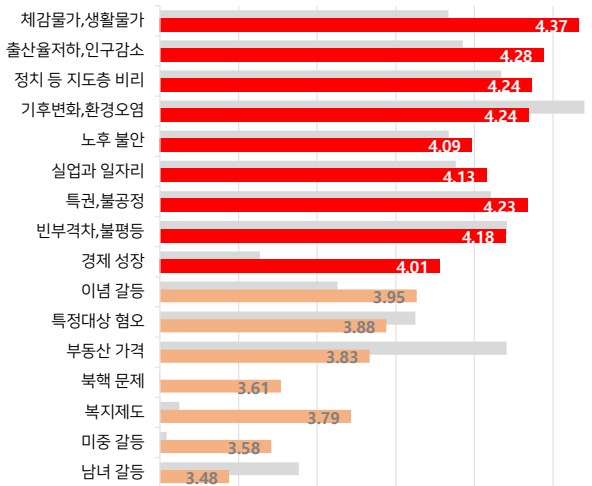
보수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중도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진보층, 걱정 정도 평균 점수 (2023.02.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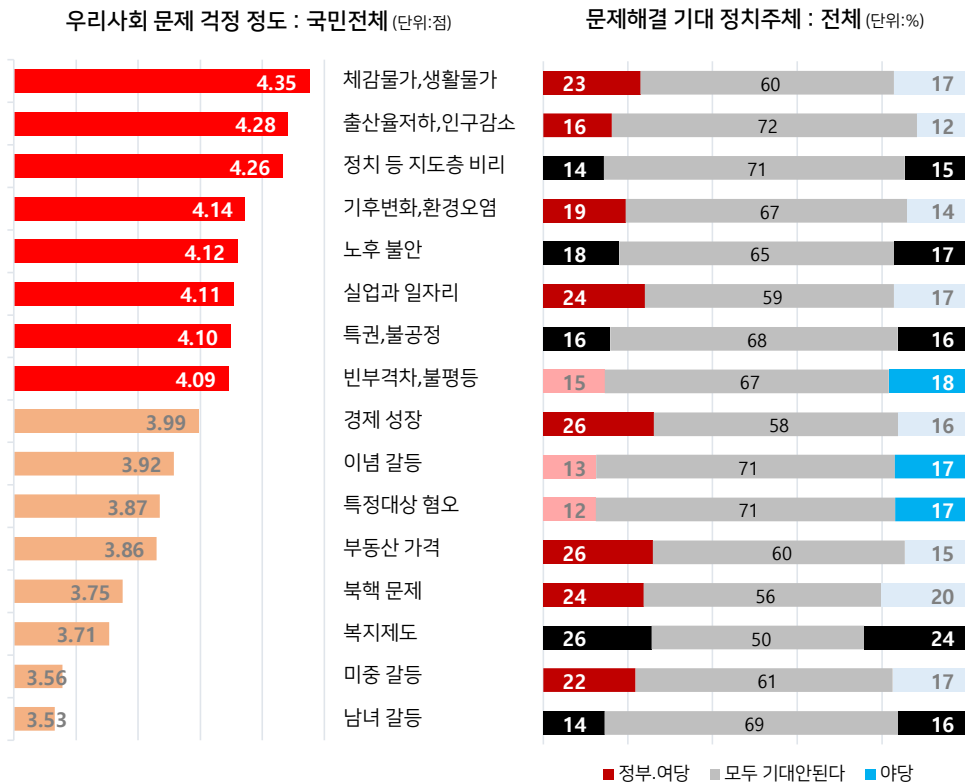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걱정 정도는 낮아지고, 진보층은 높아짐
 - : 보수층의 걱정 정도는 많이 낮아졌고, 중도층은 소폭 낮아졌으며, 진보층은 많이 높아짐
 - : 보수층과 진보층의 이러한 변화는 ‘정권교체’ 때문으로 보임(2021년은 문재인 정부, 현재는 윤석열 정부)
- ☑ 한편, 중도층과 진보층은 2021년에 비해 ‘경제성장’을 걱정하는 정도가 상승함
 - : 특히 진보층은 2021년 3.55점에서 4.01점으로 상승 폭이 큼
 - : 현재의 경기둔화 또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진보층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성장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주요 문제에 대한 정치주체 해결 기대감

기대감 매우 낮은 가운데, 정부·여당 근소하게 우위

- 우리 사회 문제를 정부·여당과 야당 중 누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앞서 우리 사회 각각의 문제를 어느 정치주체가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① 정부·여당, ② 야당, ③ 모두 기대가 안된다 등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임
- 국민적 걱정이 가장 높은 ‘체감물가, 생활물가’를 살펴보면, ‘모두 기대가 안된다’는 응답이 60%로 높은 가운데 ‘정부·여당’이 23%로 ‘야당’(17%)보다 근소하게 높음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총 16개 문제 중 정부·여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8개이고, 야당이 우위를 차지한 문제는 3개, 나머지 5개는 박빙으로 나타남
 -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짙은 붉은 색은 정부·여당 우위, 짙은 파란 색은 야당 우위, 검정색은 박빙을 뜻함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사회 문제들을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해결할 것으로 기대치 않음
 - : 16개 문제 전체에 걸쳐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낮음
- ☑ 총 16개 문제 중 정부·여당이 8개 문제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야당이 3개 문제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함
 - : 정부·여당이 수적으로 많지만,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긍정적이라 말하기 어려움
- ☑ 2023년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로, 여야 모두 국민적 기대감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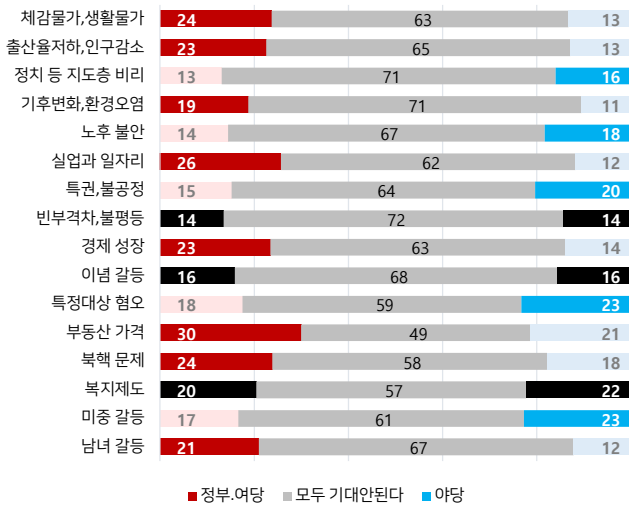
□ 남자 2030세대는 정부·여당, 여자 2030세대는 야당

- 2030세대의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를 살펴보면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은 ‘정부·여당’, 여성은 ‘야당’ 우세를 보임
- 남녀 2030세대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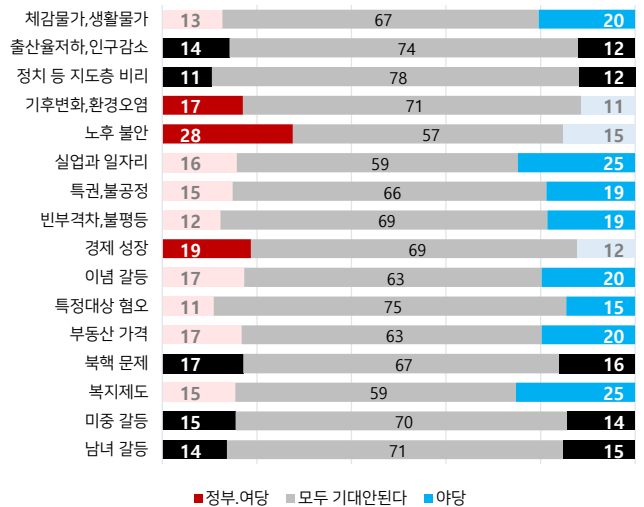
남자 18~20대 : 정부·여당 8개 > 야당 5개 / 박빙 3개
 여자 18~20대 : 정부·여당 3개 < 야당 8개 / 박빙 5개

남자 30대 : 정부·여당 9개 > 야당 5개 / 박빙 2개
 여자 30대 : 정부·여당 3개 < 야당 11개 / 박빙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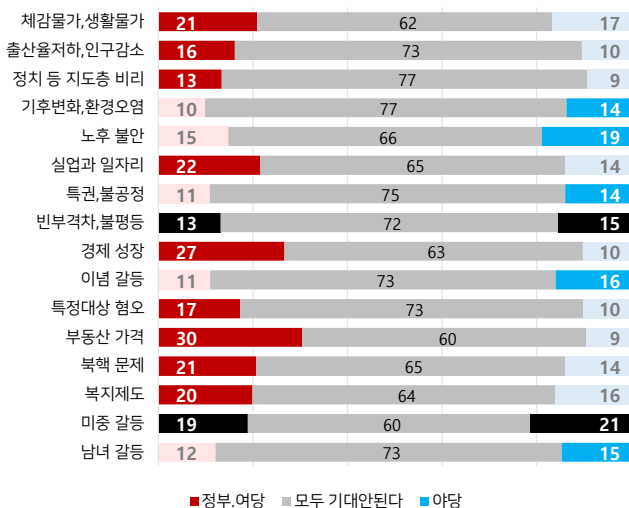
남자 18~2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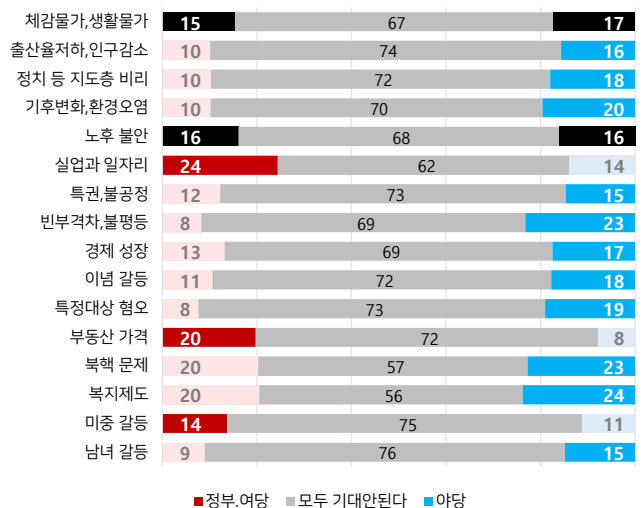
여자 18~2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남자 3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여자 3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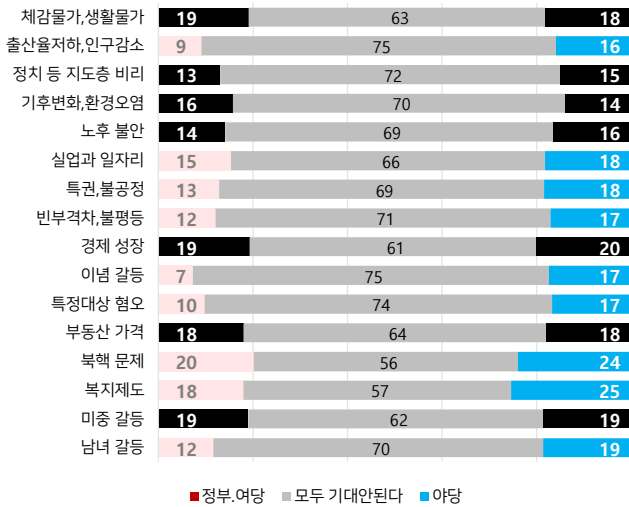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자 2030세대는 정부·여당에 기대하고, 여자 2030세대는 야당에 기대하는 것으로 뚜렷이 대별됨
 - : 이는 현재의 정당지지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분석됨
 - : 남자 20대 국민의힘 43% vs 민주당 11% / 여자 20대 국민의힘 12% vs 민주당 29%
 - 남자 30대 국민의힘 38% vs 민주당 24% / 여자 30대 국민의힘 23% vs 민주당 34%
- (자료 : NBS, 1월 30일 ~ 2월 1일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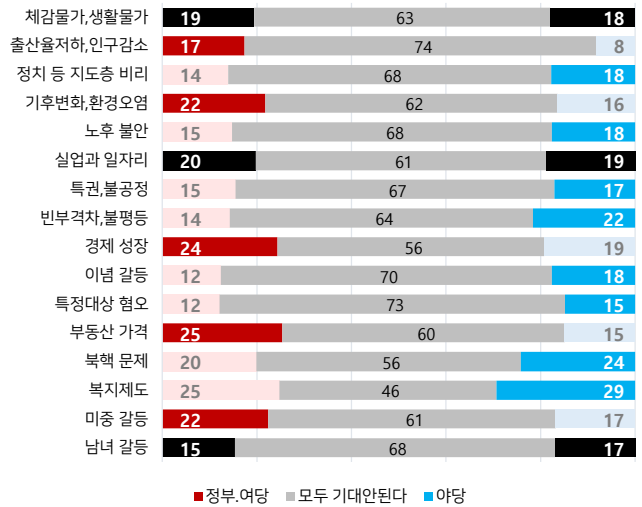
□ 4050세대 야당 우위, 60대 이상 정부·여당 우위

- 4060세대의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를 살펴보면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4050세대는 야당 우위이고 60대 이상은 정부·여당이 우위를 보임
- 4060세대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40대 : 정부·여당 0개 < 야당 9개 / 박빙 7개 50대 : 정부·여당 5개 < 야당 8개 / 박빙 3개
60대 : 정부·여당 13개 > 야당 1개 / 박빙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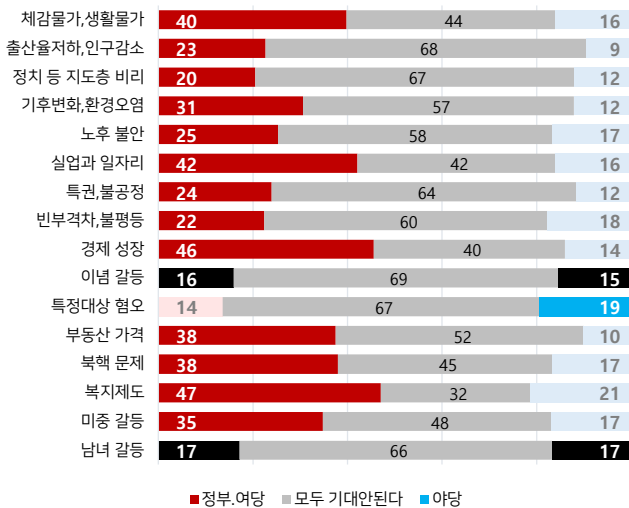
4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50대,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60대이상,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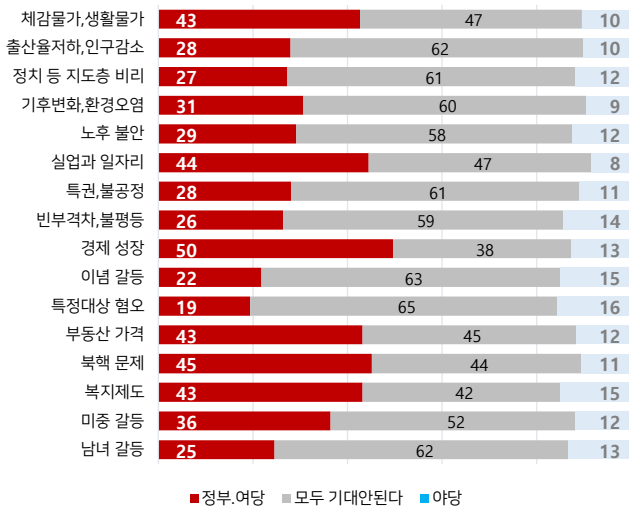
Kstat Point

- ☑ 4050세대는 야당, 60대 이상은 정부·여당에 기대하는 양상이고, 이 역시 정당지지도와 유사함
 : 정당지지도에서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이 우위에 있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우위임 (자료 : NBS, 1월 30일 ~ 2월 1일 조사결과)
- ☑ 우리사회 문제해결 주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모든 성/연령에 걸쳐 매우 낮고, 현 정당지지도가 그대로 투영됨
 : 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의 정책공약 발표가 봇물을 이룰 것인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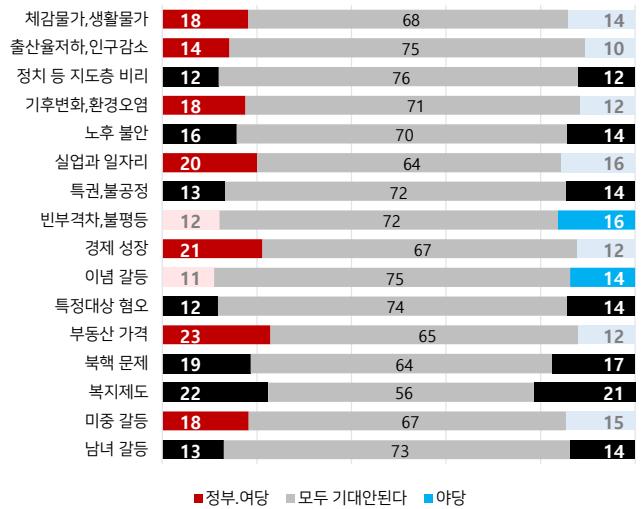
□ 보수층과 진보층, 이념 따른 정당 지지 뚜렷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를 살펴보면 보수층은 확실한 정부·여당 우위이고, 진보층은 확실한 야당 우위임
- 이념별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우세를 보인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음
보수층 : 정부·여당 16개 > 야당 0개 / 박빙 0개 **중도층 : 정부·여당 7개 > 야당 2개 / 박빙 7개**
진보층 : 정부·여당 0개 < 야당 16개 / 박빙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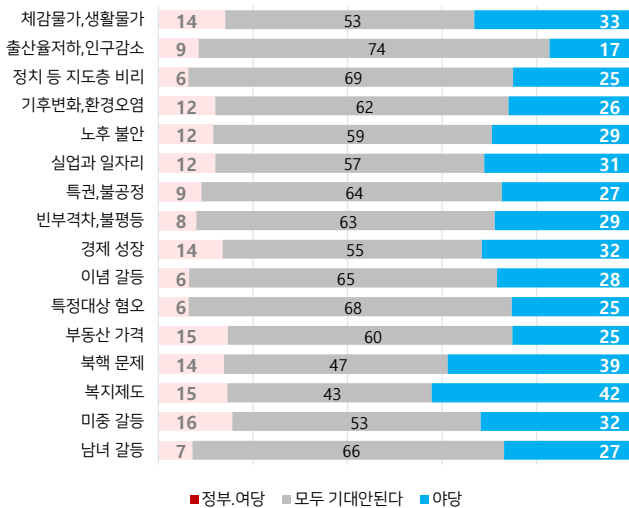
보수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중도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진보층,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 (2023.02.05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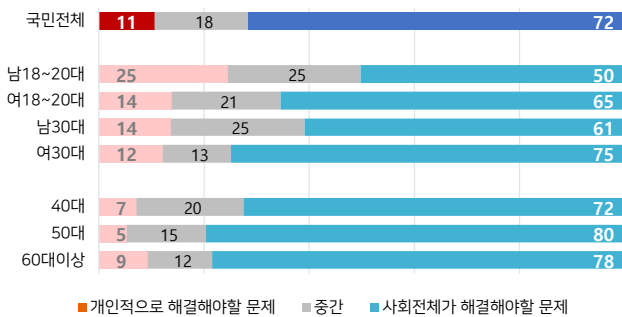
- ☑ 우리사회는 이른바 '정치과잉'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모든 정책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층은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진보층은 야당을 옹호하는 흐름이 매우 강함
 : 이번 우리사회 문제해결 기대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수층과 진보층은 입장이 뚜렷함
- ☑ 다가오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책대결, 정책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보수층 vs 진보층간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주요 문제 해결 방향성

□ 사회문제 해결 방향,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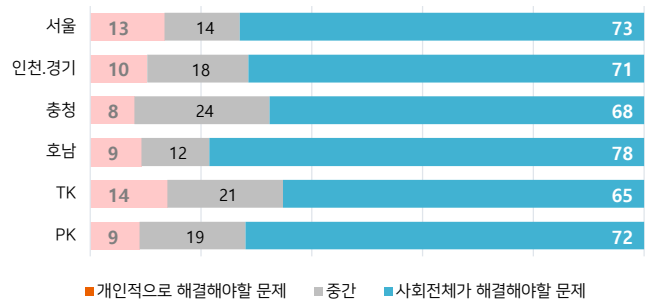
-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국민 72%는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은 11%에 그침
 - “다음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 의견에 가까우세요? **우리사회 주요 문제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에 대한 질문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높고,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5060세대 △호남 △자영업, 주부 △400만원 이상 소득층 △진보층 등임
-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TK △블루칼라, 학생 △보수층 등임

사회문제 해결 방향 : 국민전체, 성/연령별 (2023.02.05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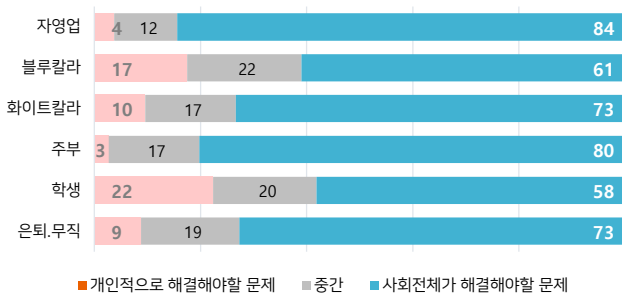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 방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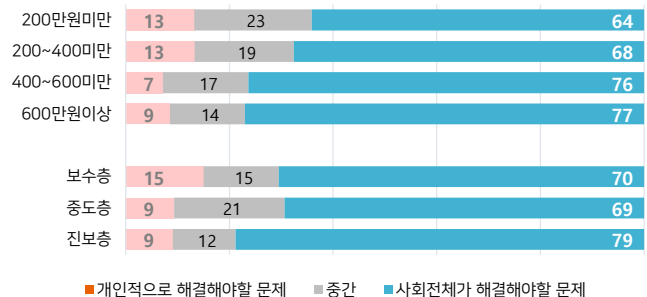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 방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사회문제 해결 방향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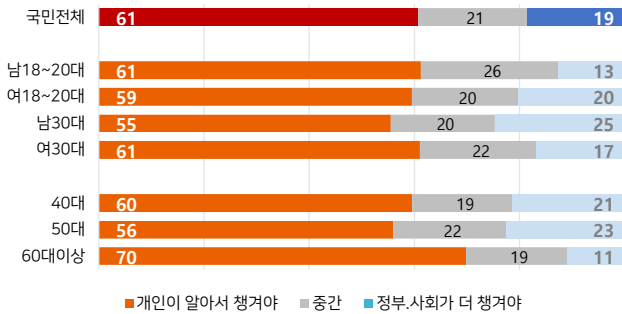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는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함
 - : 앞서의 각종 사회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이러한 문제해결은 사회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문제라는 인식이 뚜렷함
- ☑ 다만, 남자 18~20대의 경우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50%로, 과반을 넘지 못할 정도로 낮음
 - : 이들은 사회문제라고 해도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함
 - : '개인주의' 성향이 특히 강한 이들 세대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개인 삶' 해결 방향,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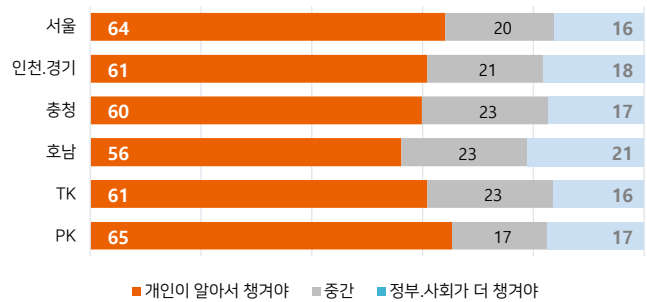
- '개인 삶'에 대해 국민 중 61%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19%는 '정부.사회가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 의견에 가까우세요?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이 챙겨야 한다'에 대한 질문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특히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서울, PK △주부, 학생 △400만원 이상 소득층 △보수층 등임
- '정부.사회가 더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50대 △블루칼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개인 삶' 해결 방향 : 국민전체, 성/연령별 (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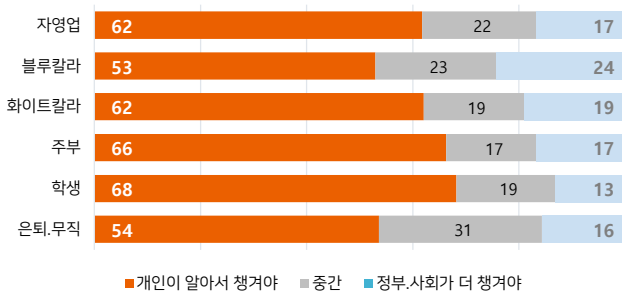
'개인 삶' 해결 방향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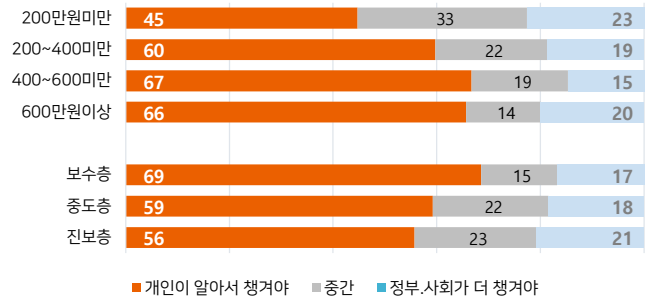
'개인 삶' 해결 방향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개인 삶' 해결 방향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2.05조사,단위:%)



Kstat Point

- ☑ 현대 국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이며, 이러한 역할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진보·보수 정부 모두 복지를 강화해 왔음
 - : 즉, 국민 개인의 삶을 정부와 사회가 더 챙기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임
- ☑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삶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아, 정부.사회의 역할에 부정적 태도를 보임
 - : 이는 한편으로 우리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이고(앞서 사회문제 해결주체 기대감 참고),
 - : 한편으로 우리사회 공동체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9호는 『국민의 경제적 삶 현황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3년 2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2월 사회지표는 2월 1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